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렙바이블 대본집

Ep.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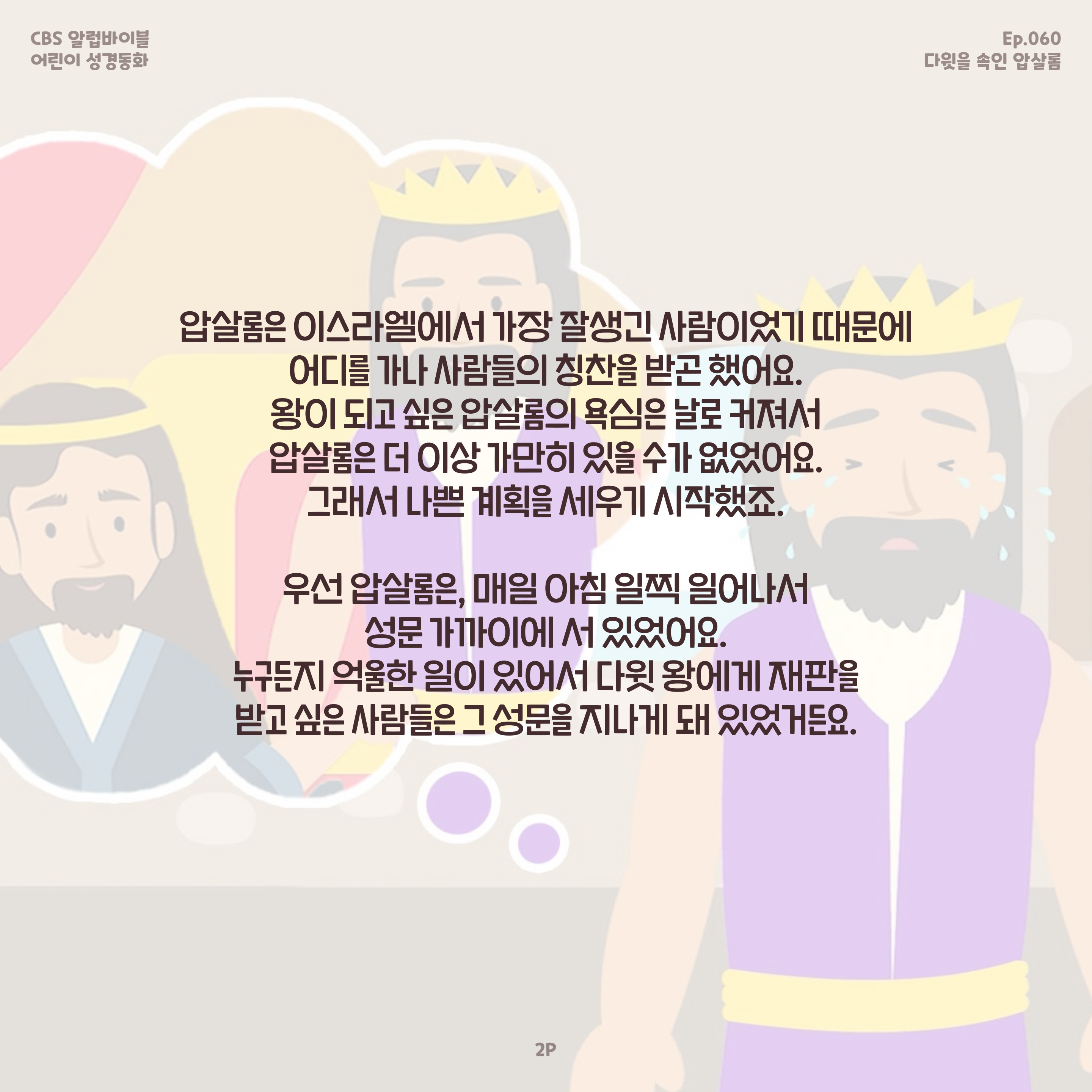
다윗을 속인 압살롬

(사무엘하 15:1~19:43)



다윗 왕에게는 여러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왕이 너~무나 되고 싶었던 왕자가 있었어요.
바로 ‘압살롬’이었죠.

“어머머 어머머.
압살롬 왕자님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라곤 찾아볼 수 없어요!”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곤 했어요.
왕이 되고 싶은 압살롬의 욕심은 날로 커져서
압살롬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우선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가까이에 서 있었어요.
누구든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 성문을 지나게 돼 있었거든요.

압살롬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먼저 허물없이 말을 걸었죠.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왕궁까지는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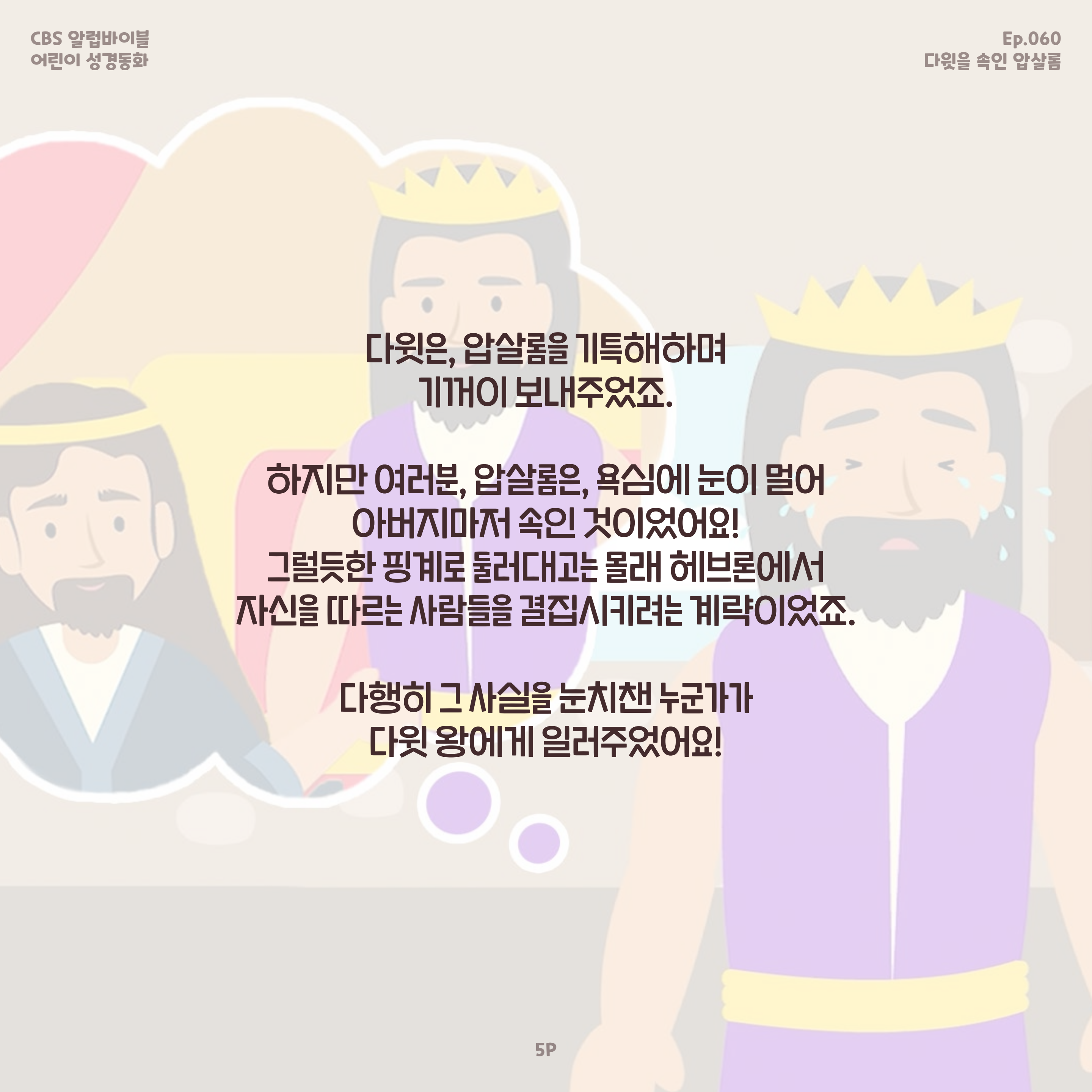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면
압살롬은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선생님, 안타깝게도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는
선생님의 딱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서봤자, 찬밥 신세일 거란 말이죠.”

**“하... 저 압살롬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면 선생님 같은 분들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을 텐데.
참 아쉽네요, 아쉬워요!”**

이런 식으로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 사로잡아갔어요.
하루는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아버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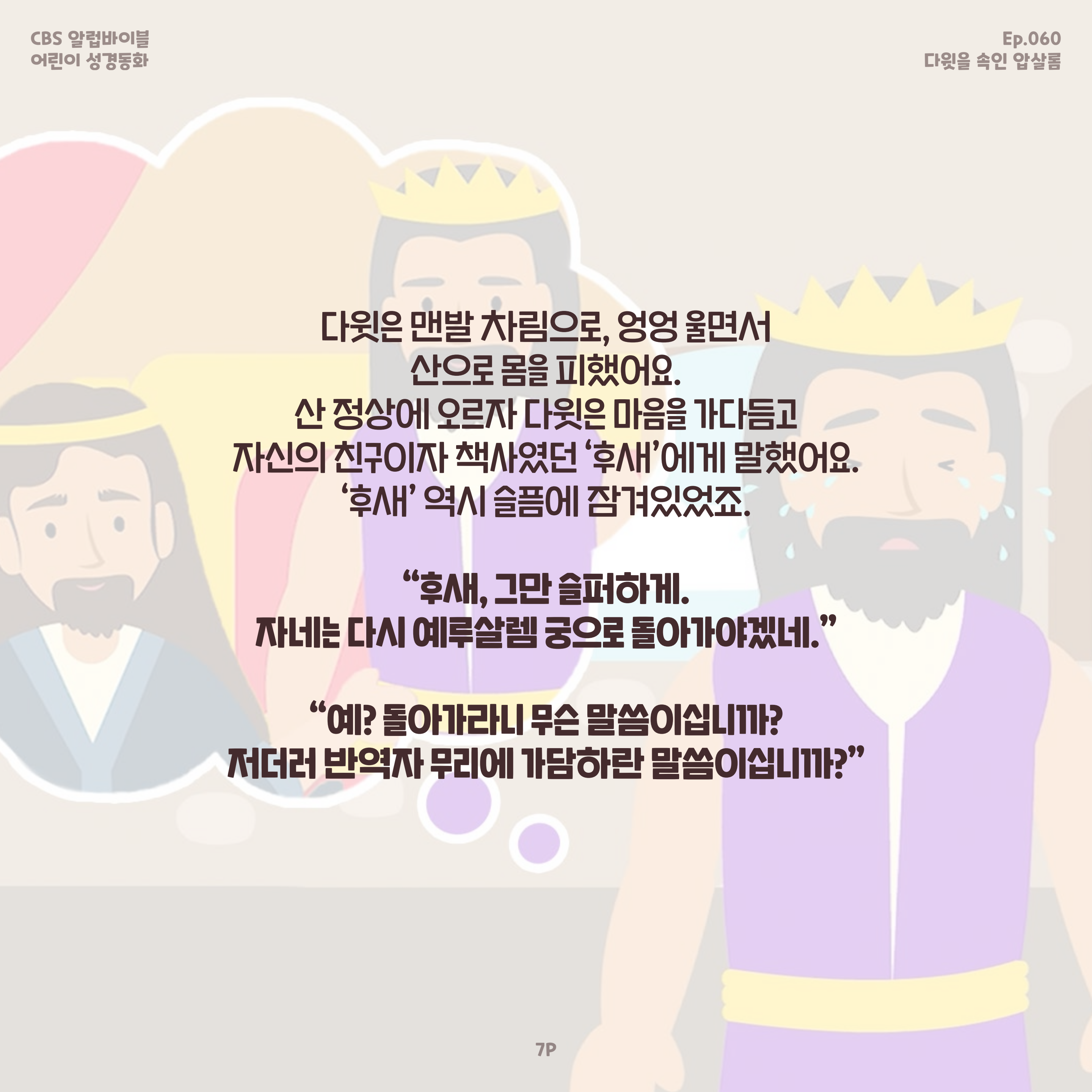
다윗은, 압살롬을 기뻐하며
기꺼이 보내주었죠.

하지만 여러분, 압살롬은,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마저 속인 것이었어요!
그렇듯한 핑계로 둘러대고는 몰래 헤브론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려는 계략이었죠.

다행히 그 사실을 눈치챈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알려주었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 왕자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있으면 군대를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 궁을 치러 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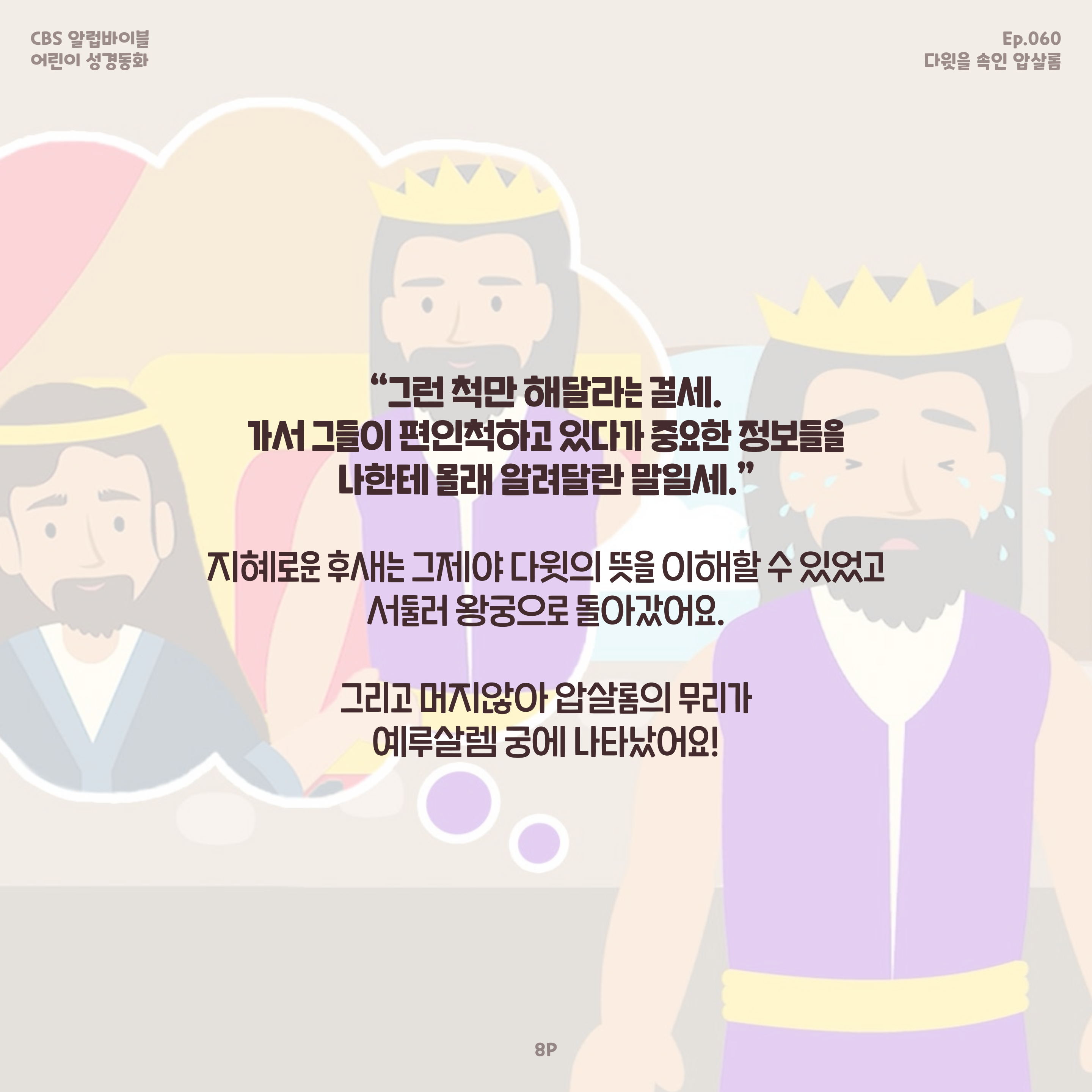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다윗은 마음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사람들을 이끌고 왕궁을 떠나야만 했어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다윗은 맨발 차림으로, 엉엉 울면서
산으로 몸을 피했어요.
산 정상에 오르자 다윗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친구이자 책사였던 ‘후새’에게 말했어요.
‘후새’ 역시 슬픔에 잠겨있었죠.

“후새, 그만 슬퍼하게.
자네는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야겠네.”

“예? 돌아가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더러 반역자 무리에 가담하란 말씀이십니까?”



**“그런 척만 해달라는 걸세.
가서 그들이 편인척하고 있다가 중요한 정보들을
나한테 몰래 알려달란 말일세.”**

**지혜로운 후사는 그제야 다윗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서둘러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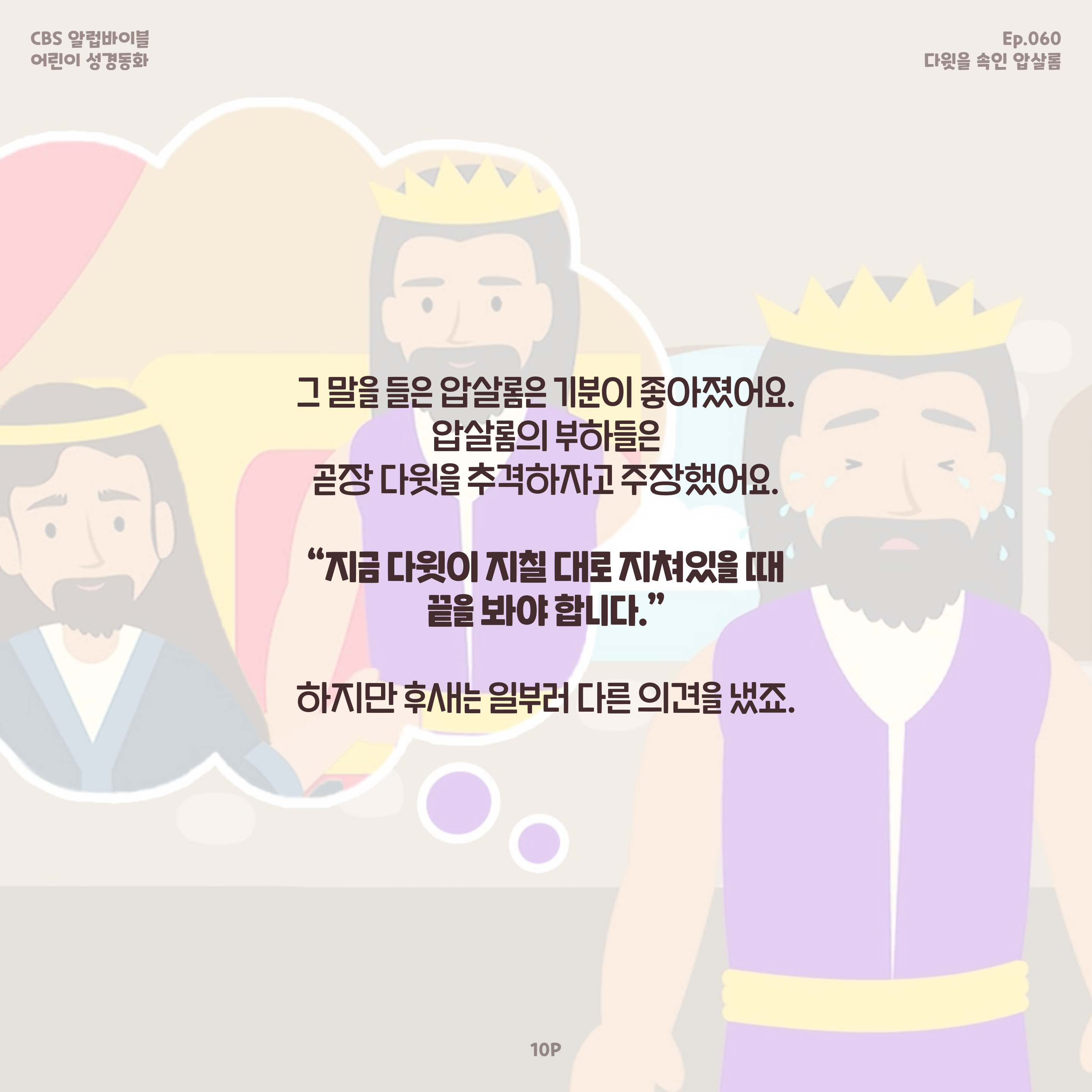
**그리고 머지않아 압살롬의 무리가
예루살렘 궁에 나타났어요!**

“왕이여, 만세! 압살롬 왕이여, 만세!”

**‘후새’가 자신을 향해 만세를 외치는 걸 본 압살롬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뭐 하는 거요?
내 아버지의 친구라는 자가 왜 아버지를
따르지 않은 게요?”**

**“지금까지야 왕의 아버지를 따랐지요.
하지만 이제 왕자님께서 새 왕이 되는 건
시간문제인데 제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모시기로 하었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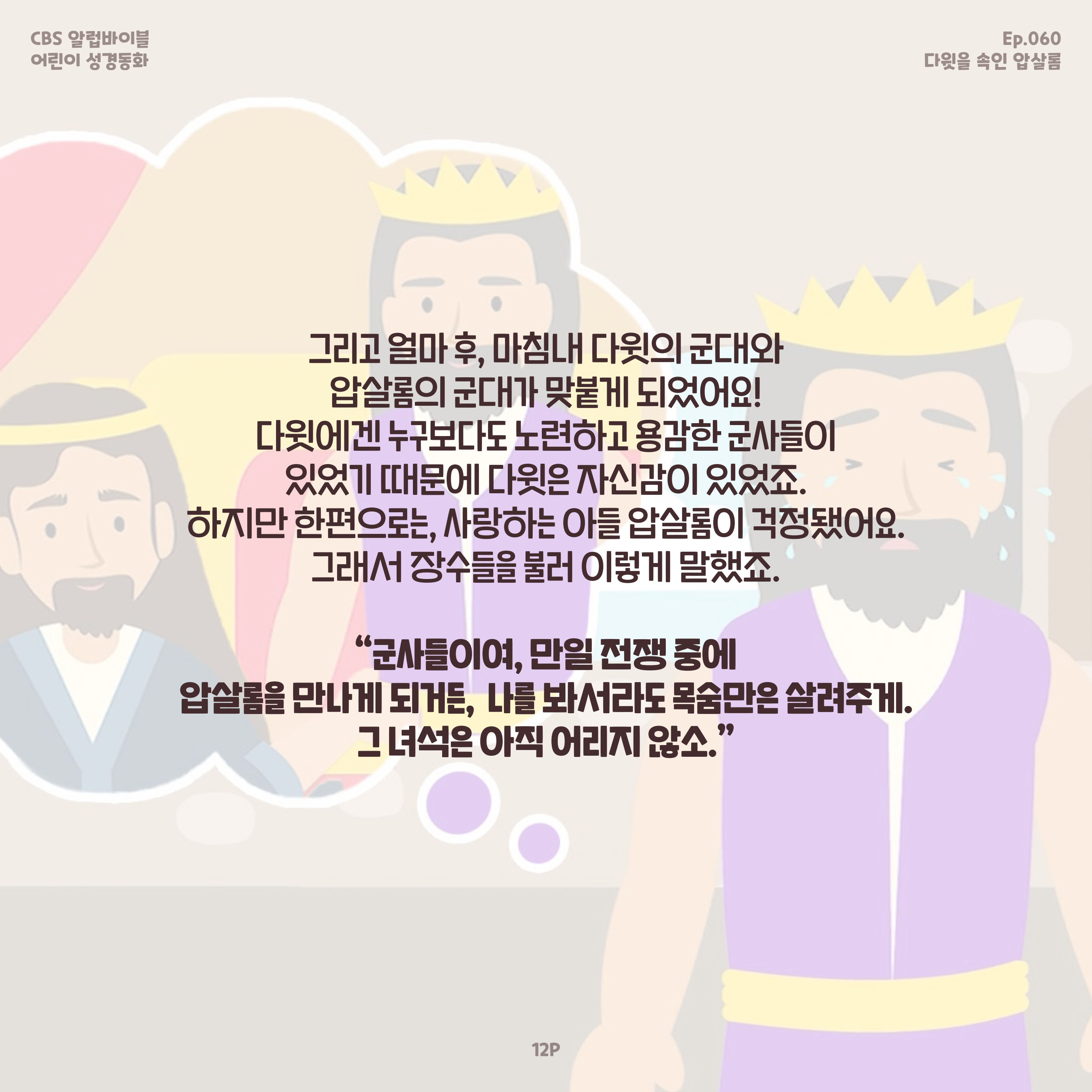
**그 말을 들은 압살롬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압살롬의 부하들은
곧장 다윗을 추격하자고 주장했어요.**

**“지금 다윗이 지칠 대로 지쳐있을 때
끝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후사는 일부러 다른 의견을 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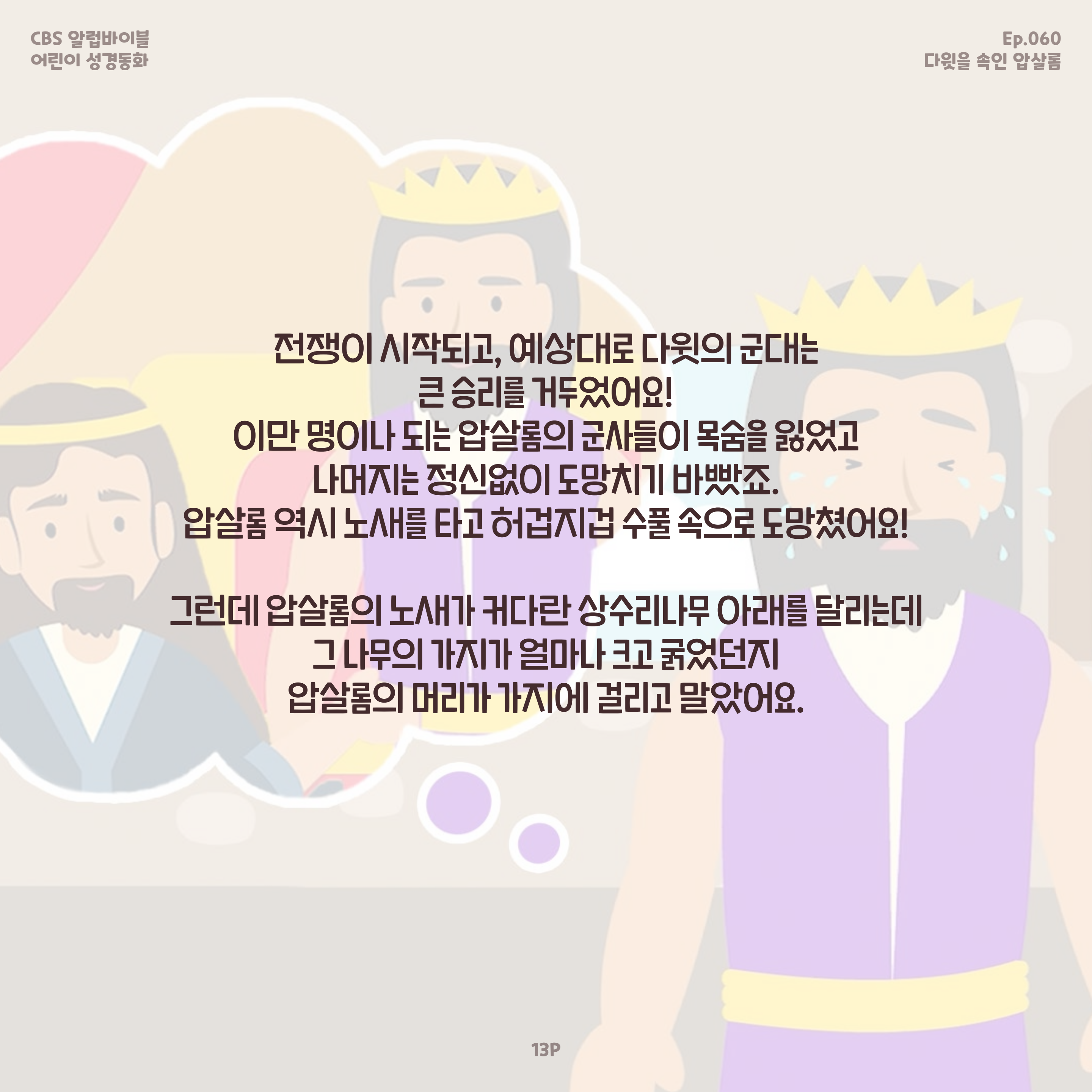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이 쫓기는 신세라지만
그의 군사들은 아주 용맹합니다.
그자들은 지금, 새끼를 배배앗긴 곰처럼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군사들을 모으시고
힘을 키워서 다윗을 치시지요.”**

**압살롬은, 지혜로운 후사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후사가 시간을 벌어진 덕분에
다윗의 몸을 피하고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맞붙게 되었어요!
다윗에겐 누구보다도 노련하고 용감한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장수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죠.**

**“군사들이여, 만일 전쟁 중에
압살롬을 만나게 되거든, 나를 보더라도 목숨만은 살려주게.
그 녀석은 아직 어리지 않소.”**



전쟁이 시작되고, 예상대로 다윗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만 명이나 되는 압살롬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는 정신없이 도망치기 바빴죠.
압살롬 역시 노새를 타고 허겁지겁 수풀 속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나무 아래를 달리는데
그 나무의 가지가 얼마나 크고 굵었는지
압살롬의 머리가 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러든 말든 노새는 앞으로 달려갔고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린 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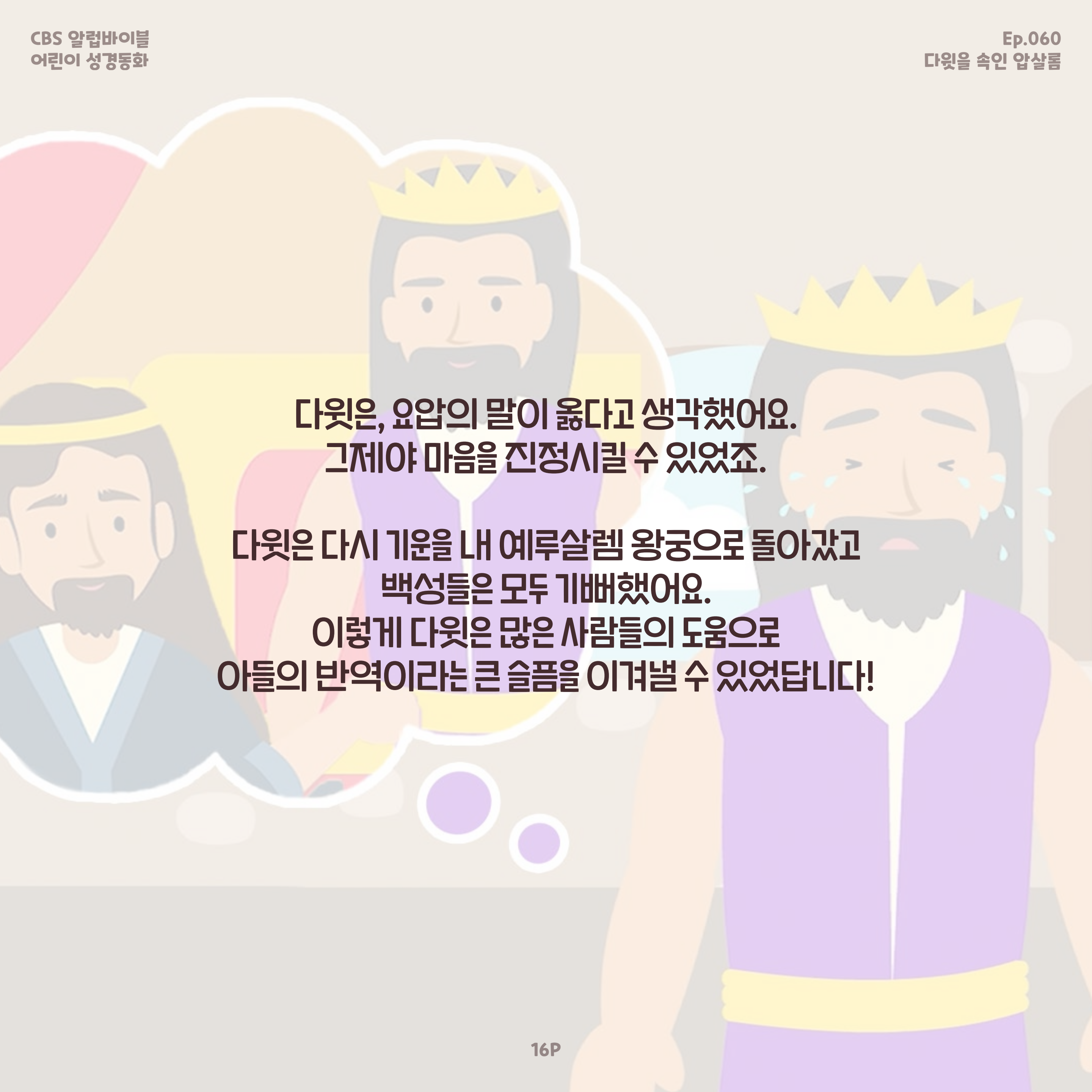
다윗의 군사들은, 압살롬을 살려두라는 다윗의 명령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나타나서는
창 세 자루를 꺼내 들어 압살롬의 목숨을 거두었어요!

요압은 충직한 장수였지만
이렇게 때때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서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했거늘...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자 요압이 다윗을 찾아와 비장한 말투로 말했어요.

**“왕이시여, 어찌 왕께서는 저희를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왕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한 명 때문에
이리 슬퍼하시면 저희는 대체 누굴 위한 싸운 것입니까.
백성들이 왕을 떠나길 원하십니까?”**



**다윗은, 요압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제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죠.**

**다윗은 다시 기운을 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갔고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이렇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들의 반역이라는 큰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